

투데이

현대家, 광주에 제2 무등도서관 만든다

故정주영 회장 10주기 추모...2013년까지 100억 투입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광주에 도서관을 지어 기부한 데 이어 여섯째 아들인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가 광주에 또다른 도서관을 건립,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립도서관은 2일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에서 오는 2013년까지 100억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무등도서관 인근에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 그룹 일가의 도서관 건립 기부는 무등도서관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 북구 우산동에 들어선 무등도서관은 지난 1981년 현대건설이 4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은 뒤 광주시에서 기부채납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80년 5월 황정호로 고통을 겪은 광주시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도서관을 지어 기부한 것이다.

무등도서관은 1만2488㎡ 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2700석 규모의 열람실을 갖춰 당시에는

상당한 규모였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20년이 지난 뒤 또다시 광주에 새 도서관을 건립해 주기로 한 것은 올해가 정 명예회장의 추모 10주기가어서 고인의 뜻을 잇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故 정주영 회장

이날 광주시를 찾은 정몽준 이사장은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에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선친인 고(故) 정주영 회장 추모 10주년을 기념하고 또, 도서관을 지어 광주시민에게 내놓은 선친의 뜻을 받든다는 의미에서 광주에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도서관을 지어 광주시에 기부채납 하되 도서관 명칭에 ‘아산’을 포함해 줄 것을 제안해 왔다”라며 “앞으로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도서관 건립 제안서가 접수되는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 도서관은 광주시가 부담하는 부지매입비 이외에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무등도서관 인근 또는 광주시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새 도서관을 부지 2만7064

㎡, 연 면적 65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줄 것을 건의했다. 도서관에는 통합 자료보존관, 자료·정보열람실, 청소년 및 노인·장애인 등 문화복합시설, 디지털 자료실 등이 들어서도록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정몽준 이사장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관계와 관련해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북한과 대화, 교류, 협력정책 기조는 유지됐다고 본다”며 “북한과는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적대국이기 때문에 대화, 교류, 협력정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어 “박근혜 전 대표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참여해 도와준다고 하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왕 도와주실 거라면 당 공식기구에 참여해 도와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박 전 대표는 지금까지 당 밖에 계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현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보훈의 달’ 태극기 나눠드립니다

광주 북구 두암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2일 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기념하기 위해 두암3동 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주민들에게 태극기 100여개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檢 “정선태 법제처장 금품수수 의혹 규명”

“돈 받은 사실 없다” 부인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정선태(55·사법연수원 13기) 법제처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 정관계 로비창구이자 금융브로커인 윤여성(56·구속)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산저축은행 사건과는 관련이 없으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가 2007년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하던 정 처장에게 사건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관

련자 진술을 확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 처장은 이에 대해 “돈은 받은 사실이 없고 부산저축은행 쪽에 아는 사람이 없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정 처장은 검사 출신으로 대검 형사과장,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장, 의정부지검 차장, 대구지검 1차장을 지냈으며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선진화를 위한 법령정책위원회 법·제도단장을 거쳐 작년 8월 법제처장에 취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

석원(FIU) 원장(차관보급)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변호인 없이 홀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도착, 금품수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답한 표정으로 “오해가 없도록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동안 저축은행 비리로 금융감독원 감사역과 전·현직 국장급이 잇따라 검찰에 체포·구속됐으나, 금융위 고위간부가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김 원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김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환경 전남쌀 여전히 푸대접

80kg당 14만8988원...19% 상승 불구 전국 꼴찌

전남 쌀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전국 1위의 친환경 농업 지역임에도, 전남지역 산지 쌀값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전남 산지 쌀가격은 지난달 15일 기준 80kg당 14만8988원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12만5220원)에 비해 19% 올랐다. 상승폭만 보면

충남(22.9%) 다음으로 높고 전국 평균(16.4%)보다 2.6%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쌀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남 쌀은 산지 가격 기준으로 전국 평균(15만4640원)보다도 낮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지역 산지쌀값이 16만9868원으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경기미가 좋다’는 인식이 여전히

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원(16만5028원), 충북(15만5588원), 경북(15만3448원), 전북(15만1592원), 전남(15만680원), 충남(14만9천636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도의 친환경 쌀 재배면적은 6만3972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친환경농업 1번지’다. 서울 시내 20개 자치구 473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도 56개로, 전체 117개 선정업체의 48%에 달하고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에서도 매년 4~5개가 선정될 정도다. 그럼에도 쌀값만 이례적으로 ‘천대’ 받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는 “친환경 쌀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하거나 개별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관측센터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쌀값 하락폭이 워낙 커 올해 높은 상승세에도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타지역보다 많은 쌀 재고량도 한 요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벼 주력품종 보급 확대와 저온 저장시설 확충, 대도시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전남산 쌀이 제값을 받는 유통구조를 정착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새야구장 시공사 현대·성지 2과전

900억원대 광주 야구경기장 건립공사 수주 경쟁에 현대건설과 성지건설이 맞붙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가 공사 입찰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과 성지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2개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서울)이 지분 40%로 대표사로 참여했

고, 남양건설(27%·전남), 남광건설(15%·광주), 한양(13%·인천), 모아종합건설(5%·광주)로 구성됐다.

성지건설 컨소시엄은 성지건설(38%·경기), 태영건설(37%·경기),

해립건설(25%·광주)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광주 새 야구장은 광주시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자리에 지어진다. 규모는 부지 9만7193㎡에 연면적 5만5200㎡, 지하 3층~지상 3층이다. 기본설계는 3만석 규모이지만, 실시설계와 시공은 일단 2만2000석 규모로 진행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올 1회 추경 3079억 증액 편성

광주시는 2일 모두 3조3358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2조3403억원에서 2255억원(9.6%)이 증가한 2조5658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6875억원에서 824억원(12%)이 늘어난 76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본예산 3조279억원보다 3079억원(10.2%)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예산규모로는 처음 3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주요사업비는 평동 2차산업단지 조성 100억원을 비롯해 야구장 건

립 204억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10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34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102억원, 자치구 재원조정과부금 125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152억원 등이다.

또 전기자동차 68대를 구입하는데 24억9900만원, 영주체육관 내 국민생활관을 2015년 하계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미디어센터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설계비 2억원,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비용 14억6000만원 등이 배정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배추에 항암물질 14종

김치 원료인 배추에 암을 예방하는 가능성 물질이 다양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배추 23개 품종을 대상으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글루코시놀레이트’ 등 14종의 항암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분석결과 23개 배추 품종 가운데 광범위한 암 억제 효과를 지닌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가장 많은 품종은 ‘꼬리’로 14mg/g이나 함유돼 있었다. /연합뉴스

경매 투자

• 공동투자자 및 자본주 모신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지상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50%미만 물건만 투자

오천경매연구소
H. 011-605-5000

전남·북 출장파티 전문업체

출장뷔페 · 도시락 · 식판급식 · 성당 교회결혼식뷔페 · 야외결혼식뷔페
철순/팔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종친회 · 기업체 각종행사

파티외식산업
본사 ☎(062)226-0086 | H.P 010-4601-3222

www.party-food.co.kr

www.ah-english.com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 준비

압구정영어가 한다!

년수입 10만달러 이상인 가정이거나 자녀가 10만달러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영어회화**에 투자 해야합니다.

왜? **압구정어학원(고소득자)은 그렇게 하고있다!!**
수강료는 퀴즈너를 합니다 (월 10만원 / 매 20분 수업)

★호주 어학연수 · 취업 상담★

압구정 1:1
원어민 전화영어·화상영어
070-7433-0594

함평다이내스티 CC 사/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단지 친환경 나비고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에서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요강	모집부분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코스관리팀	남/여	코스, 조경관리	경력/신입
	시설관리팀	남	설비, 보일러, 전기	방화, 위험물관리 자격소지자
	식음료팀	남/녀	조리사 웨이터/세이츄레스 주부사원	경력/신입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복지제도】
기숙사 제공, 1일3식, 4대보험, 연차휴가, 주1회 휴무 하계 및 동계휴가
교통비 지원, 기업상해보험가입 등

【접수방법】
• 우 편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번지 경영지원팀
• 팩 스 : 061)320-7710
• E-mail : seungtae01@naver.com
• 전 화 : 061)320-7717(오승태)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금서비스 · 개인신용평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년 6% 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살펴보면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 (은행금리)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한도 : KBS세 -80%+a (60%) 전세권 한도 : 보증금의 -80%
담보대출 금리 : 연 3.93%~ 담보대출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